

‘미투’ 비웃는 ‘여혐’, 소수자 억압의 결과 “응원 절실”

김치녀·한남충 등 온라인 혐오표현 늘어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 향한 적대성 표출
‘여성도 남성 혐오’ 등 논점 흐려선 안돼

일부 남성들이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에 여성 혐오 표현으로 맞서 논점을 흐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에선 혐오 표현이 소수자 억압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다른 소수자도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혐오 표현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대표적인 표현이 ‘김치녀(권리와 책임 앞에 이중적인 여성)’와 ‘한남충(매력 없는 한국 남자+벌레)’이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비하하는 데 쓰인다. 이 때문에 ‘여성도 똑같이 남성을 혐오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곤 한다.

◆혐오표현은 욕설 아닌 억압

문제는 온라인에서 쉽게 오가는 혐오 표현이 결코 ‘단순 욕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성을 향한 혐오 표현의 경우 구조적인 억압을 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숙명여대와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혐오 표현을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행을 폭로한 다음날 한 블로거는 “서지현은 O녀이고 매력도 없는 여자다. 아무리 O녀라도 OO를 풀어내면 매력적”이라며 성추행을 정당화 하는듯한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7일까지 174명의 공감을 받았다. 해당 글을 발견한 광모(34)씨는 “말을 가진 아버로서 놀란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 이웃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오싹하다”며 눈썹을 찌푸렸다. 같은 날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도 서지현 검사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물과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시민사회를 향해서는 혐오표현을 관용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기능’이 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체 없는 ‘남혐’…소수자 응원해야

이 때문에 남녀가 주고받는 혐오 표현에서 진정한 의미의 ‘남혐’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성 비하 표현 자체에 문제가 있지만, 여성이 구조적으로 겪는 성폭력 문제와 대등하게 볼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고려대 교수인 황명진 공공사회학회 부회장은 “(미투가) 제도적인 각성으로 소수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특정 누리집에서 여혐 표현에 동조하는 남성이 은근히 늘고 있다.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가 세력을 넓히는 일종의 ‘전선(戰線)’인 셈”이라고 우려했다. ‘여성도 남성을 혐오한다’는 식으로 미투 운동의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미투는 외국인을 포함한 노동 약자 등 다른 소수자들도 목소리를 낼 기점이 될 수 있다”며 “나는 당신의 용기를 지지한다는 분위기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소수자 혐오를 넘어 진지한 사회적 고민을 하기 위한 기점으로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법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임진왜란 전 ‘경복궁도’ 복원 족자 공개 ‘서초역-내방역’ 車·보행자 터널 내년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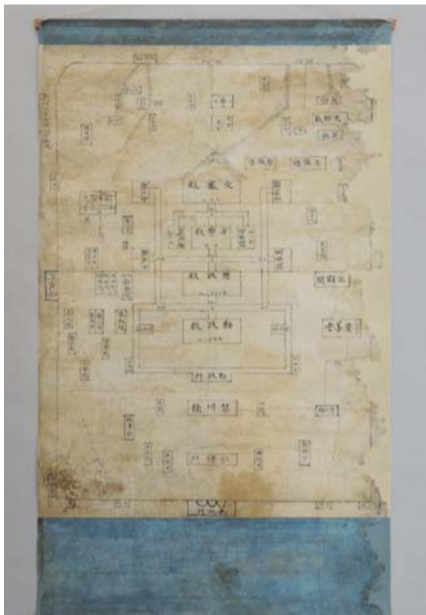
문소전 등 조선전기 궁궐 모습 담겨

서울역사박물관이 임진왜란으로 소실되기 이전 경복궁 내 건물(전각)들의 배치 모습을 그린 ‘경복궁도’ 족자를 원형 복원해 7일 공개했다.

경복궁도(족자 : 세로127.6cm, 가로 71.3cm, 그림 : 세로 102.7cm, 가로 71.3cm)에는 국내·외에 알려진 10여 점의 경복궁도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시대 ‘족자’ 형태 그대로 보존돼 있다. 문소전이나 총순당 같이 지금은 볼 수 없는 조선 전기 궁궐의 모습이 담겨 있다. 바탕 재질은 종이로 구성되었고, 족색 종이로 장식해 상·하축을 달아 제작한 족자 형태의 필사본 고지도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16년 경복궁도를 공개구입하고 약 1년 간에 걸친 보존처리를 마쳤다. 박물관은 임진왜란 이전 궁궐에 관한 기록과 그림이 드문 오늘날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복궁은 조선 개국 직후인 1395년 창건되어 약 200년 간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법궁으로 자리매김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완전히 불에 타 폐허가 된 이후, 역대 왕들은 창덕궁과 경희궁에 거주했다. 경복궁 중건은 고종이 즉위한 이후인 270년 만에 진행됐다.

박물관은 경복궁도가 임진왜란 이전의 모습을 고증하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추정



보존처리된 경복궁도. /서울역사박물관

한다. 경복궁도에는 1770년 영조가 세운 ‘친잠비’가 표시되어 있다. 고종의 경복궁 중건 이후 새로 세워진 수정전, 집옥재 등은 빠져 있는 점을 볼 때, 제작시기는 18세기 말~19세기 후반 사이로 보인다.

친잠비는 영조 43년(1767년)에 왕비가 경복궁 안에 친히 누에를 쳐 채상례를 행하고 ‘정해친잠’이라 이름 지었다. 영조 46년(1770년)에 임금이 ‘정해친잠’ 4글자를 직접 쓰고 해당관청에서 돌에 새겨 제작한 비다. /이법종 기자

강남역까지 출퇴근시간 20분 단축

서울시는 서초대로 서초역~내방역 구간을 잇는 터널을 이달 말 관통한다고 7일 밝혔다. 개통은 오는 2019년 2월이다.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수역 사거리를 연결하는 서초대로는 서초동 서리풀공원 내 군부대로 인해 길 중간이 끊겨있다. 이 때문에 강남의 동·서축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남부순환로, 사평로, 방배로, 효령로, 반포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만 했다. 이번 터널 관통은 착공 2년 4개월에 진행됐다.

터널 내부는 왕복 6차로와 폭 2.4m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된다. 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차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구분하는 투명방음벽을 설치해 먼연과 미세먼지 차단 물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는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에서 방배동 내방



서초역~내방역 구간 연결 터널. /서울시

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80m으로 터널 구간 360m, 옹벽구간 150m, 나머지 기존 도로 정비구간 770m이다. 왕복 6~8차로로 확장된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서초역~내방역 터널이 개통되면 내방역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 통행시간이 약 20분 이상 단축된다”며 “만성지정체

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터널 관통시기에 맞춰 8일 오후 4시 터널공사현장에서 인근 주민 200여명을 초대해 공사추진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가진다. /이법종 기자

테니스 ‘정현’ 선수 건국대병원서 정밀검진

세계 4대 그랜드 슬램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에서 한국 최초로 4강에 올라 화제를 모은 정현 선수가 건국대병원을 찾았다.

정현 선수(29위, 삼성증권후원)는 정형외과 정홍근 교수와 김진구 교수, 정석원 교수와 성형외과 최현곤 교수, 피부과 이양원 교수의 협진으로 부상 부위인 발바닥을 비롯해 부상 방지를 위한 종합 정밀 검사를 받았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정현 선수는 16강전에서 노박 조코비치 선수와의 경기에서 발바닥 부상이 심해져 8강전부터 진통제 주사를 맞고 출전했으나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 선수와의 4강전에서 심각한 발바닥 부상으로 경기를 중단했다.

정현 선수와 건국대병원과의 인연도 주목을 받았다. 정현의 어머니인 김영미 씨는 건국대병원 물리치료사로 근무했고, 아버지 정석진 씨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이다. 또 형인 정홍 씨도 건국대학교 테니스 선수로 활약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40℃~100℃ 8단계 온도조절... 100℃로 끓인 ‘안심수’도

교원웰스 ‘웰스 포트 100℃ 정수기’

교원 웰스는 100℃까지 물을 끓이고 온도와 출수량을 각 8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웰스 포트 100℃ 정수기’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정수기와 포트 결합한 것으로 온수 사용 시 필요한 양만큼 물이 포트에 유입되고 교원웰스의 특허기술인 ‘자동가열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가열되는 게 특징이다. 한번의 출수 버튼으로 가열까지 자동 진행해 편리하며, 온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대기전력이 없어 전기가 부담도 적다.

특히 업계 최초로 채택한 ‘베이비 안심수’ 기능은 필터로 정수된 깨끗한 물을 100℃까지 다시 한번 끓여줌으로써 어린

아기나 면역 기능이 저하된 이들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배려했다.

사용 용도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40℃부터 100℃까지 총 8단계로 고객이 원하는 온도로 맞춤 설정도 가능하다.

온수 온도는 아기 연령이나 분유 종류에 따라 알맞은 온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40℃, 50℃, 70℃로 세분화했으며 차나 커피도 티백·분말 등 투입에 따라 최적의 온도를 제공하기 위해 80℃, 85℃, 90℃, 95℃로 나뉘었다.

요리나 라면을 끓이기에 안심맞춤인 100℃도 가능하다.

출수량도 8단계로 조절 가능해 사용 목적에 맞춰 물 양 고민 없이 간편

하게 선택해 편리하고, 불필요한 물 낭비를 줄여준다. 월 렌탈가격은 월 3만5900원(3년 약정 시)이다. /김승호 기자 bada@

